

일제잔재 청산, 전주 새 역사 쓰다

시, 광복 74주년 맞아 1914년부터 사용되던 동산동을 '여의동'으로 명칭 변경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선포식·주민센터 현판식·기념비 제막식 등 가저

일제잔재로 알려진 전주시 동산동의 명칭이 행정구역상 '여의동'으로 공식 바뀌었다.

여의동 주민센터에는 새로운 현판이 내걸리고 '여의동'이라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다.

전법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의 호에서 딴 동산 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된 동산동의 명칭은 그간 이곳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명칭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여의동'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주시는 바뀐 동 명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14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동 선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여의동 선포와 여의동 현판·기념비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여의동 명칭 변경 선포를 통해 지난 1914년 행정구역개편부터 사용되던 '동산'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 지역이 주민정서와 특성을 반영한 '여의동'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곳은 오늘부터, 일제잔재인 동산동이 아니라 '전주시 여의동'이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명칭변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여의동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러나 아직 법정동 변경이 남아있고 이 지역은 행정지점 등의 명칭이 아직 동산지점으로 불리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에 징역형

중국인에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4일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B(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에게 불만이 많았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망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소녀상과 함께

제2회 위안부 기림의 날인 지난 14일 전주 풍남문광장 소녀상 앞에서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와 나무 소녀상 교환을 실시한 가운데 한 시민이 소녀상 옆에서 교환한 나무소녀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소녀상 교환 행사는 전북도청 민원실 앞과 풍남문광장, 익산시청 본관, 익산역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며 8월 14일을 알리기 위해 814개를 제작해 선착순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 징역형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도(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앞서 강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언급한 관련 인물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했지만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뒷받침한다는 결론이다.

/뉴시스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업무 매뉴얼 교육 등 진행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정진영)는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요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업무관련 매뉴얼 교육과 순찰요원 능력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순찰요원은 현장에서 즉응조치를 위해 평소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일반도로와는 다른 고속도로만의 특성이 반영된 사고현장 안전수칙은 사고현장에서 운전자와 경찰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9지구대에서는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및 매뉴얼을 업무교대 시간을 활용하여 전 순찰요원이 습득하게 하고 이론과 다른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나 논의과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업무에 적용토록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문제화하고 개인별로 평가하여 부족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성 패서문 일대 근현대 이야기 공유

전주시, 토크콘서트 '서문의 시선' 내달 6일까지 3회 걸쳐 진행

전주시가 옛 전주성 패서문 일대에 담긴 근현대 전주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번 토크콘서트 '서문의 시선'은 전주시민이 직접 참여, 전주성 패서문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전주 근현대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콘서트는 (사)폭우에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다가오는 1905년부터 전주 옛 풍경을 얘기하는 '전주다가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어 오는 30일 두 번째 이야기는 '전주서문교회이야기'가 진행된다.

전주서문교회는 1905년부터 전주성 패서문 근처인 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전주시와 근현대를 함께 한 공간이다.

이날 김석호 서문교회 담임목사와 임재규 서문교회역사관장, 최창선 은

퇴장로, 김일수 전북근현대문화융합사업협의회 단장이 근대 전주를 배경으로 전주서문교회가 전주 사람들과 함께 한 이야기 등을 나눌 예정이다.

끝으로 오는 9월 6일에는 마지막 시간인 '전주근대의료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주성 패서문 일대는 근대의료기관인 전주예수병원과 전주자혜의원(1925년 이후 도입전주의원)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이날 서문의 시선에서는 두 의료기관을 통해 전주근대의료의 특징을 나누게 된다.

전주근대의료이야기는 전주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천식 박사와 김재상 전북근현대문화융합사업협의회 대표가 각각 전주예수병원에서 펼쳐진 근대식교의료와 전주자혜의원의 근대식민의료에 대해 각각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서문의 시선을 통해 전

주성 서문터 일대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해 전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원도심 토크콘서트를 주관하는 김재상 전북근현대문화융합사업협의회 대표는 "옛 전주성 패서문은 수백 년 동안 전주성과 전주시의 중심지였지만, 그간 전주시민들은 패서문에 대한 기억을 너무 많이 잊었다"며, "서문의 시선은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100년 고도인 전주의 문화와 정신을 보다 두텁게 할 필요로 마련한 미니토크콘서트"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 마련을 위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시민 주제들이 원도심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주시,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18일까지 여행 명소 소개

여행 상담 진행 등 전개

전주시가 올 가을 수도권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박람회에서 전주관광 홍보를 한다.

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박람회 방문객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 주요 여행 명소를 소개하고,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전주여행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

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참가하고 국내외 관람객 1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박람회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홍보관에 배치, 토크플레이닛이 선정된 아시아 최고 여행자인 전주의 문화와 역사, 주요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전주만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올가을에는 '맛있는' 전주여행

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각오다.

또한 시는 관광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특화 관광상품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4개 시·군을 연계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전주만의 관광 상품을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주한옥마을과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전주덕진공원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하고, MICE와 연계한 국내외 전주여행상품과 기차여행객을 위한 전주 관광 상품을 홍보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도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었다.

고교생 대상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도내 고교 15개팀 참가... 고창고 '최우수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전북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2019 전북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올해 11회째로 도내 고등학교 15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입상 상위 6팀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했으며, 최우수상은 고창고등학교 우수상은 고창여자고등학교 정려상은 "진안공업고등학교, 군산제일고등학교, 서영여자고등학교, 정읍여자고등학교"가 차지했다.

대회는 도내 학교와 학생들에게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심폐소생술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일 이론 및 실기로 이뤄진 사전교육과 13일 본대회인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6일 본관 모악홀에서 열린 사전교육에서는 응급의학과장 윤재철교수의 강의로 급성 심정지 개념과 심폐소생술 개요,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

제세동기의 개념과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이 진행됐다.

실기교육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교육으로 의식 확인 및 구조요청,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기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이 이뤄졌다.

사전 교육에 이어 13일 열린 본 대회에서는 각 팀별 지도교사 1명과 학생 2명이 참가해 '상황극(신고 및 AED 운반), 학생1의 가슴압박, 학생2의 구조호흡, 학생2의 AED(자동제세동기) 패드 부착 및 제세동, 학생2의 가슴압박, 학생1의 구조호흡 활동 등에 대한 경연대회'가 진행됐다.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정태오 교수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경연대회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우리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구형 '원심 동일'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 "재판 과정에서 친형 고 이재선씨

정신병자·패륜이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이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정'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석훈 기자

중앙동 전라감영길 발전협의회, 태극기 게양 운동 벌여

전주시 중앙동(동장 이창수) 전라감영길 발전협의회(회장 최희완)에서는 지난 14일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웨딩거리 및 전라감영로 일대 상가 및 주택 50여 곳을 직접 방문, 태극기 게양 운동을 벌였다.

중앙동 전라감영길 발전협의회는 최근 웨딩거리가 새롭게 태극기 모범거리로 지정된 바, 웨딩거리를 비롯한 전라감영길 일대를 돌며 직접 국기꽂이를 설치하고 직접 태극기를 달아주는 한편 게양 방법등을 홍보하기도 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태극기 게양 행사에 사용된 태극기는 전라감영길 발전협의회 회원인 전주남문문구센터에서 제공했다.

최희완 전라감영길 발전협의회장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악화로 인해 작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애국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태극기 게양 운동을 하게됐다"며 "광복절은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는 뜻 깊은 날인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민들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마을 이장단 대상 특별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최근 농촌지역의 도로와 농로에서 경운기, 용달차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찾아오는 이장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외출 시 밝은 옷을 입고, 좌우를 잘 살피며 무단횡단 안하기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 농기계 후부반사판을 부착하고,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턱끈까지 하, △차에 타면 뒷좌석도 안전띠

매며, 음주 시 운전이나 외출하지 않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기계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 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매년 전북지방경찰청, 농촌진흥청 및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10여개 농촌마을을 선정해 경운기 및 전동휠체어에 후부반사판을 부착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광지팡이 등을 배포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